



“완주군에 후백제 문화유적 15곳 확인”

박성일 군수, 18일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 국회토론회서 언급
역사문화권 정비 등 특별법에 후백제 역사문화권 포함 주장

박성래 기자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 토론회

완주군 지역에 후백제 문화유산과 관련해 15개소의 유적을 확인하고 체계적인 발굴을 진행 중이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18일 국회 의원회관 2층 1세미나실에서 열린 ‘후백제 역사문화권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 “후백제 왕도권역인 완주군이 후백제 문화유산 현황 파악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봉림사지와 용계산성을 포함한 15개소의 유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세 차례의 발굴조사를 통해 구전오만 전해진 봉림사지의 실체를 최초로 실증했다”며 “올해는 용계산성의 발굴조사를 추진하는 등 후백제 문화를 체계적으로 밝혀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봉림사지 삼존불을 실물 크기로 복제해 국립전주박물관에서 개최된 후백제 특별전에 활용하는 등 지역 후백제 문화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박 군수는 또 “완주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지금의 전주와 완산주를 이뤘고, 통일신라 말에 완산주는 백제 부흥과 후삼국 통일을 꿈꾼 견훤과 후백제 사람들에 의해 후백제의 수도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완주군은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옛 교통로로 후백제의 왕실사찰 봉림사지와 후백제 최후의 현장인 용계산성이 남아 있다”며 “특히 봉림사지의 불교유산들은 독자적인 후백제 문화를 대변하는 대표 문화유산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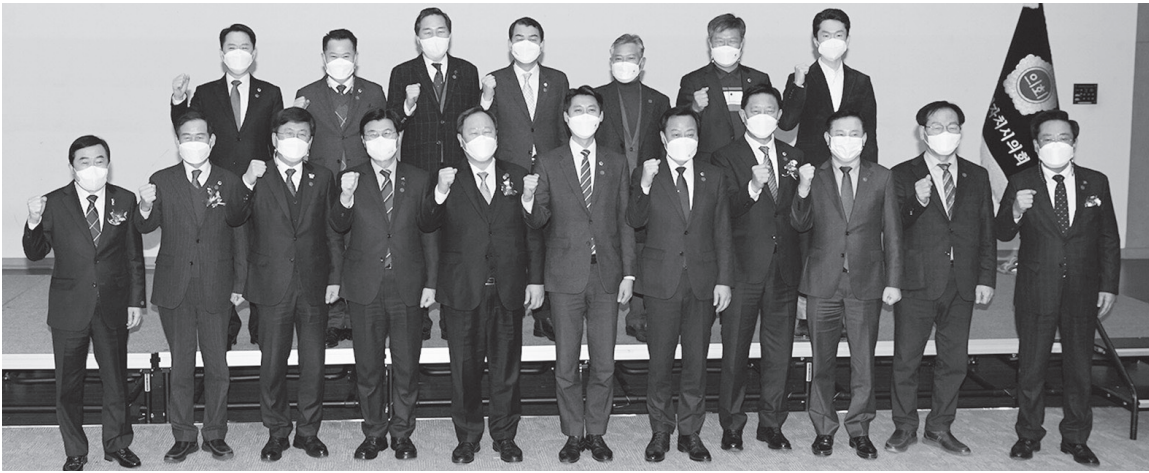
후백제 왕실이 발원한 것으로 추정하는 완주 봉림사지에는 보물급 후백제 석조문

화제가 출토되었으며, 완주 용계산성은 후백제 시기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중요 내륙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으며, 후백제의 마지막 전투가 이뤄진 마성(馬城)으로 지목하는 연구가 이뤄지기도 했다.

박 군수는 “완주군은 여러 사·군과 함께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 역사문화권을 포함해 후백제문화를 발굴, 보존, 계승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미래 가능성의 지평을 넓혀가는 초석을 마련하는 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김성주 의원과 안호영 의원, 김종민 의원, 임이자 의원 등이 주최했으며, ‘한국고대사에서 후백제 역사의 의미’ 등 3개 주제발표에 이어 전문가 자유토론으로 이어졌다.

완주군을 포함한 전주시 등 후백제문화권 7개 시·군은 지난해 11월에 후백제 역사문화를 제대로 규명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후백제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 발족식을 갖고 후백제사에 대한 역사 인식을 전향하고 후삼국시대 최강대국인 후백제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주력해 나가자고 뜻을 모은 바 있다.



지방의회, “조직권-예산권도 넘겨야”

전국 시도의장 법률정비 촉구
“인사권만 이양은 반쪽 독립”

〈속보〉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이른바 ‘반쪽짜리 지방의회 독립’ 논란과 관련해 인사권에 이어 조직권과 예산권도 추가 이양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지 1월13일자 2면 보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새해 첫 임사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빼대로 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등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들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최근 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조직 구성권과 조직예산 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진정한 기관대립형

권력구조 운영에 한계가 있는만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위해선 지방의회법을 제정해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 13일자로 시행됐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된 지방의회사무처 인사권이 각 의장에게 이양됐다. 따라서 신규 채용이나 부서 이동 등 인사행정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조직권은 이양되지 않아 지방의회 스스로 조직개편을 못하게 됐다. 예산권 또한 넘겨지지 않아 인건비와 운영비 등 살림살이 예산은 여전히 지자체장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편,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인구 감소로 인한 쇠퇴지역, 또는 기초생활 인프라 미달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했다.

아울러 학생건강검진을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검진으로 통합 촉구 건의문, 소음공해 규제기준 강화 촉구 건의문 등도 각각 채택한 채 관계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정성학 기자

김대오, 민주당 선대위 조직혁신단장 임명

김대오 전북도의원(운영위원장·익산·사진)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조직혁신단 단장으로 임명됐다.

조직혁신단은 전국 17개 시도에 본부를 두고 지역별 지지가 결집과 맞춤형 정책 발굴 등을 통해 선대위에 대선공약을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또, 대선 후보와 민심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도 수행한다.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세계가 선전국으로 인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경제 대통령”이라며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개혁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학 기자



선관위, “대선·지선 관리대책 만전” 전북선거관리위원회와 도내 15개 구·시·군선관위 간부들이 18일 도선관위에 모여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시달회의’를 갖고 각각 올 3월과 6월에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할 선거대책을 숙의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전북도, 전국 최고 ‘청백리’...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전북도가 전국 최고 수준의 ‘청백리(淸白吏)’로 평가됐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주요 27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진행한 결과 전북도는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도(3등급)보다 무려 두 계단 상승한 결과다.

평가결과 전북도는 ▲반부패정책 확산 노력 ▲부패방지제도 운영 부문에서 만점을 받았고 ▲반부패 추진계획 ▲반부패 정책성과 ▲부패위험 제거노력 부문 등 또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청렴마일리지제 운영을 통한 청렴 생활화, 4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청렴 교육, 민원인들에게 청렴 서한문 발송 등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온 점을 높이 샀다.

특히, 수도권에서 LH공사발 부동산 투기 파문이 터지자마자 전북도 분청과 주요 산하기관 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체 전수조사를 벌이는 등 공직사회 투기근절 노력도 돋보였다.



김진철 감사관은 “전라북도가 반부패 청렴의 표상으로 자리잡은 원동력은 전 청원이 청렴을 공직자의 몫으로 인식하고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올 한해도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부패방지 시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 전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감사원이 주관한 자체감사활동 평가 또한 최근 4년 연속 광역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기도 했다.

/정성학 기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 “정헌율 시장 복당 환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정헌율 익산시장의 복당 신청을 적극 환영하며 익산과 전북지역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18일 오전 당대표실에서 정헌율 익산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복당 신청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익산지역 현안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송 대표는 “정헌율 시장의 복당 신청으로 전북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의 퍼즐이 완성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송 대표는 “정 시장의 핵심 공약인 유라시아 철도 시대의 개막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익산시민들과 힘을 모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자”고 익산 현안들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정 시장은 “철도교통의 중심도시인 익산시는 도약할 준비가 끝났지만, 정부의 지원이 아직까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지역 현안 사업들을 건의했다.

이어 “무소속이었지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한병도



의원과 많은 일을 함께해오고 있다”면서 “특히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정책이 익산에서는 마을자치연금과 청년수당 등으로 선보이며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익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익산의 더 큰 성장을 이뤄내는 힘이 되어 줄 것으로 확신한다. 당원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익산=고윤영 기자

이 광고는 새전북신문이 지역사회의 문화, 예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무료로 실어드리는 공익광고입니다.

WISE Foundation

‘당신의 책을 만들어 드립니다’

☎ 010-9220-8545 ✉ chosite8545@hanmail.net 🌐 wise4060.modoo.at